전남대, 장애인 등 특별전형 12명 뽑는다

■ 로스쿨 2009년 입시 전형 살펴보니

1·2단계 합산 최종 선발

서울대는 통합전형 실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1단계로 대학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영어·논술 등을, 2단계로 면접과 논술·영어·구술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은 1단계와 2단계 성적을 합산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발 인원의 3배수에서 10배수까지 선발하는 1단계는 LEET와 영어, 대학성적이 주요 변수로 등장했으며 최종 합격 여부는 2단계 이후 실시되는 각 대학의 면접과 논술, 구술 시험이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단 서울대는 단계를 나누지 않고 통합전형을 실시한다. 일반전형의 50%인 우선선발은 학업성적 100점, LEET 80점, 기타(영어, 제2외국어, 자기소개, 사회활동경력) 120점 등 총 300점이 적용되고 심층선발은 구술(200점) 점수를 포함해 총점이 500점으로 정해졌다.

또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5~10% 가량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의 경우 로스쿨 관련 법규정에 따라 경제적·신체적 약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과 장애인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형 방식은 대부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이 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로스쿨 정원 120명인 전남대가 10%인 1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서울시립대(5명), 제주대(4명) 등 3개 대학이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중앙대는 정원의 8%(4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서울대(9명)와 이화여대(6명)가 6%를 특별전형에 할당하는 등 모두 14개 대학이 정원의 5.7~10%를 특별전형에 할애했다. 연세대(6명·5%), 고려대(6명·5%) 등 11개 대학은 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고려대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6명을 신체적 취약계층(3명)과 경제적 취약계층(3명) 등으로 구분해 선발할 방침이나 그 밖에 대부분 대학은 지원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 대학은 아직 세부적인 특별전형 방식을 확정짓지 않았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학별 로스쿨 입시 전형안 공고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2009학년도 주요대학 로스쿨 입시요강 (일반전형)

대학 (특성화 분야)	모집군 (정원)	전형방식 1단계	전형방식 2단계	전형방식 최종결정	특별전형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가군 【150】	〈심층선발〉 학업성적(100점), LEET(80점), 기타(영어, 제2외국어, 자기소개, 사회활동 경력)(120점), 텝스, 토플(IBT, CBT) 논술, 면접·구술(200점)		총점 500점	6%이상 (9명이상)
고려대 (국제법무)	나군 【120】	대학성적(15%) LEET(15%) 외국어능력(15%) 토익, 텝스, 토플(CBT), 토플(IBT) 또는 IELT 자기소개서(10%) 수학및졸업계획(5%) 【합계:60%】	서면질의 (20%) 대면질의 (20%) 【합계:40%】	1단계, 2단계 모두 고려하여 최종선발	5% (6명)
연세대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나군 【120】	〈일반선발〉 대학성적(20점) LEET(20점) 공인영어성적(20점) 서류심사(15점) 논술(10점) 【합계:85점】	1단계:85점 구술면접(15점) 【합계:100점】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 2단계 전형요소를 합하여 선발	5% (6명)
전남대 (공익인권)	가군:70명 나군:50명 【120】	대학성적(20점) LEET(20점) 외국어성적(20점) 텝스, 토플(IBT,CBT), 토익 【합계:60점】	논술(20점) 면접(20점) 【합계:40점】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 1,2단계 성적 합산하여 선발	10% (가군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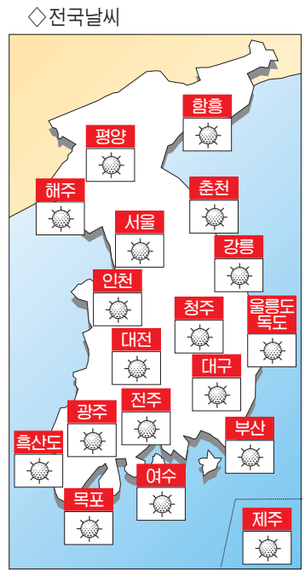
아침 안개 주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4월 8일 (음 3월 3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조금	8~24℃
목 포	구름 조금	8~21℃
여 수	구름 조금	10~18℃
완 도	구름 조금	7~21℃
구 례	구름 조금	5~23℃
해 남	구름 조금	4~22℃
장 흥	구름 조금	4~22℃
고 흥	구름 조금	6~20℃
순 천	구름 조금	5~23℃
영 광	구름 조금	6~22℃
진 도	구름 조금	5~22℃
전 주	구름 조금	7~24℃
남 원	구름 조금	5~23℃
흑산도	구름 조금	7~15℃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3:35 15:39 썰물〈 08:45 20:53
여 수 밀물〈 10:24 22:58 썰물〈 04:16 16:26

▲해뜸 06:10 ▲해짐 18:59 ▲달뜸 07:02 ▲달짐 21: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날 씨						
최저/최고	11/15	8/17	7/22	6/22	8/19	6/22

지하철 화재 소방훈련

광주도시철도공사는 7일 지하철 1호선 2구간 개통을 앞두고 광주지역 5개 소방서와 합동으로 광산구 도산역 등 5개역에서 가상의 화재사고를 가정,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육 양극화 해소 부자교육 철회를"

전교조 광주지부 촉구

전교조 광주지부는 7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양극화 해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광주 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는 상위 1%를 위한 부자교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전교조의 집회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측은 당초 지난 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날짜와 장소, 대회명 등을 변경했다. 전교조의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집회 내용은 변하지 않아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상필기자 camus@

광주·전남 총선 사범 256명 검·경 수사중

4년 前보다는 40% 감소…엄격한 선거법 영향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광주·전남지역 선거법 위반사례가 4년 전 17대 총선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검을 비롯한 순천·목포·해남·장흥지청에서 수사중인 선거법위반 사범은 광주지검 27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175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도 광주경찰청 41명(34건), 전남경찰청 140명(97건) 등 모두 181명(131건)으로, 17대 총선의 304명에 비해 40%가 줄었다.

이처럼 선거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선거법 규정과 단속이 한층 강화된 데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자수의사에 따라 감형이나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이 자유로워진 점도 선거사범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경우 경선이 끝나고 대세가 굳어진 곳이 많다 보니 소극적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범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내일 투표 시민에게 각종 할인혜택 제공

광주시 인센티브제 운영

광주시는 4·9총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립민속박물관, 우치동물원, 공영 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입장료를 면제· 할인해주는 투표참여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투표 참여자의 경우 투표장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증을 받아 이용료 감면 대상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선거 당일인 4월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립광주박물관(당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이다. 우치동물원은 500원 할인(성인 기준).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엔 사발면에서 이물질

과자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물의를 빚은 식품 회사가 만든 사발면에서 이번에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사진〉이 발견돼 해당 업체가 조사에 나섰다.

7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47)이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이 회사의 육개장 사발면을 먹으려다 라면용기 안에서 이

물질 조각 2개(지름 1.5㎝)를 발견해 신고했다.

농심은 이날 오전 해당 주유소로 직원을 보내 사과한 뒤 보존된 제품을 수거해갔으며 이물질의 정체와 라면용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